

이동을 나타내는 합성용언과 접속 구성에 대하여

內山政春(우치야마 마사하루)*

1. 머리말

문법론과 어휘론의 기본 단위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단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복수 어근의 결합을 합성어로 보는가 복수 단어의 접속 구성(=단어결합 또는 연어)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그 대상을 형태론에 소속시키는가 통어론에 소속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므로 합성어의 인정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극히 어렵다는 것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 어려움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합성어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합성용언, 특히 선행용언의 부사형에 후행용언이 결합된, 흔히 $\langle V_1\text{-어 } V_2 \rangle$ 로 표현되는 형태는 그것을 합성용언으로 보는가 접속 구성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langle V_1\text{-어 } V_2 \rangle$ 에는 후행용언이 보조용언으로 된 소위 보조용언 구성도 있으므로 $\langle V_1\text{-어 } V_2 \rangle$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게 된다.

- (ㄱ)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이 통어적 구성인 경우
- (ㄴ)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이 형태적 구성인 경우
- (ㄷ) 후행용언이 보조용언인 경우 (형태·통어적이라 일컬어짐)¹⁾

* 박사과정

이 세 가지 유형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별하는가 하는 문제가 합성용언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졸고(1997) 역시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졸고(1997)에서 시도한 판별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V₁-어 V₂> 중에서도 특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이동을 나타내는 합성용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고찰 대상으로 하는 것은 후행용언이 ‘가다/오다’인 합성용언이며, 합성용언과 접속 구성과의 대치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선행용언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의 시간적 상호관계

졸고(1997)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합성용언의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은 그 상호간의 시간적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형이 존재하는 한편 선행용언의 동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행용언의 동작이 시작되는 유형이 존재한다.²⁾ 이 글에서는 전자를 <동시>, 후자를 <계기>로 부르기로 한다. (1), (2)는 각각 <동시>와 <계기>의 예이다.³⁾ 이들을 합성용언으로 보는 근거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1) 노래를 따라 부르려 했지만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다.<동19 : 271>⁴⁾

-
- 1) <V₁-어 V₂>가 통어적 구성이 아닌 경우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은 ‘단어’가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용언’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용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동시>와 <계기>의 이분법으로는 분류될 수 없는 유형도 존재한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졸고(1997)에서는 이들의 공통점으로 선행용언이 후행용언의 복수성(후행용언이 반복됨)을 들었다.
 - (가)…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기차를 갈아타는 장소였다. <동10 : 308>
 - (나)화영이 내게서 내려와 돌아누우며 말했다. <동12 : 301>
 - 3) 이러한 시간적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문법개념으로 택시스(таксис)가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동시>와 <계기>를 졸고(1997)에서는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7)에서 사용된 одновременность와 разновременность를 직역하여 <同時>와 <異時>로 부른 바 있다. 택시스에 대해 한국어로 언급한 것으로 野間秀樹(1993)가 있다.

(2) 밀가루에 섞어 반죽을 해 튀겨먹으면 맛이 향긋하지.<창94 : 30>

<동시>와 <계기>의 차이는 이동을 나타내는 합성용언에도 존재한다. 다음은 형태상 같은 구성인 합성용언의 예이다.

(3) 기영이는 동생을 면회하러 찾아갔다.

(4) 영희가 방아간에서 떡을 찾아갔다.

이것은 홍재성(1987 : 953)에서 제시된 예문이다. 홍재성(1987)은 (3)과 (4)의 ‘찾아가다’ 간에 존재하는 통어·어휘적 특성의 차이(거기에는 <동시>와 <계기>의 차이도 포함된다)를 관찰하면 (3)과 (4)는 다의어로 볼 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한국어 사전에는 양자를 각각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고이다. 홍재성(1989)은 ‘내려가다’를 예로 한 것이 다를 뿐 같은 논지라 할 수 있다.

후행용언으로 ‘가다/오다’를 취하는 (3), (4)와 같은 합성용언(앞으로 ‘-어 가다/오다’로 표기함)은 홍재성(1989 : 107)에 의하면 <동시>가 되는 구성이 약 140개, <계기>가 되는 구성이 약 340개 존재한다고 한다. 이들을 합성용언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재성(1987)에서는 <동시>만 합성용언으로 보고 <계기>에 대해서 그 판단을 보류하였으나 홍재성(1989)에서는 이 유형에 속하는 <동시>와 <계기>를 모두 합성용언으로 인정하였다.

김창섭(1981 : 76-78)은 합성용언 전반에 걸쳐 폭넓게 고찰을 가한 논고인데, 거기서는 ‘사가다’ 등 <계기>가 되는 ‘-어 가다/오다’들을 예로 들어 그들은 통어적인 특성으로 보아 합성용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계기>에 속하는 유형을 ‘받아가다’로 대표시킨 김창섭(1996)도 그 결론은 동일하다.

4) 이 글에서 제시하는 예문은 문예잡지와 신문에서 수집한 실제 언어 자료이다. 자료명은 약호로 적고 권말의 자료 일람에서 자료 명과 대조시켰다. 문예잡지의 경우 <창 92 : 20>과 같이 통권 호수와 페이지를 밝히고 신문의 경우 <조930101>과 같이 약호 다음에 발행 일자만 밝혔다.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르기로 하고 원문을 일부 생략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였다.

김기혁(1995 : 301-342)은 ‘합성용언의 범위를 일단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 한정하려고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가져가다’, ‘잡아가다’, ‘다녀가다’ 등을 예로 들어 ‘이들을 합성용언으로 볼 때 이들과 같이 ‘가집’의 의미와 유사한 짜임을 가지고 있는 동사 연결인 ‘안아가다, 물어가다, 집어가다, 골라가다, 길러가다...’ 등이 합성동사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계기>의 ‘-어 가다/오다’를 합성용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기>의 ‘-어 가다/오다’를 합성용언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강현화(1998)가 그것인데, 김창섭(1981)과 마찬가지로 ‘사가다’를 예로 들면서도 그것을 합성용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V_1 이 타동사이고 V_2 가 ‘가다’나 ‘오다’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능한 문장들로써 수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구성이다. 따라서 이들 구성 모두를 합성동사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들은 일반적인 합성동사 구성과는 달리, 두 동사가 의미적인 합성성을 가지며, 후행 동사가 택하는 선행 동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어적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구성은 합성동사 구성으로도 볼 수 없으며, 기존의 동사연결 구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동사연결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 (강현화1998 : 50)

이러한 논리로 ‘새로운 동사연결 구성’을 제안한다. 강현화(1998)는 <계기>를 합성용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어 온 < V_1 -어 V_2 >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은 강현화(1998)와는 반대되는 입장 즉 <계기>의 ‘-어 가다/오다’ 역시 합성용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 선다. 아래에서는 <계기>를 나타내는 ‘-어 가다/오다’의 용례를 개관한 다음 그것이 합성용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어 가다/오다'의 용례

'-어 가다/오다'가 <계기>가 될 경우, 선행용언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것은 이미 홍재성(1987), 김기혁(1995), 김창섭(1996) 등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첫째는 선행용언이 타동사라는 점이다. 둘째는 선행연구에 따라 약간씩 표현이 다른데 그것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V₁ 위치에 목적보어를 취하는 타동사 중의 일부만 사용되며, 이 타동사가 지칭하는 행위나 동작의 결과가 인물주어를 중개자로 해서 화자가 연루된 공간/장소에 대해 원심적(-어가다)/구심적(-어오다)으로 이동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복합구성이 된다. (홍재성1987 : 955)

연결어미 '-아'와 연결되는 두 동사의 연결은 의미, 통사적인 복합 원인이 있는데, 의미적인 관점에서는 '가짐'의 의미가 있다. 가짐의 대상은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으로 나누어지고, 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선행 행위가 후행 행위의 전제가 되는 포괄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아'로 연결될 수 없는 동사의 연결은 이러한 의미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김기혁1995 : 332-333)

… V₁이 타동사이어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과 V₁의 행위가 가해진 목적어가 다시 장소이동의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론적인 제약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창섭1996 : 98)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어 가다/오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징은 '선행용언의 동작의 결과로 생긴 객체를 주체가 소지하면서 후행용언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언어 자료에서 얻어진 '-어 가다/오다'를 제시한 다음 그것을 합성용언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 (5) 바텐더가 가져온 계산서에 의하면...<동8 : 344>
- (6) ... 아주머니는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아이를 데려가더니...<조990528>
- (7) ...방으로 모셔가라고 작은 소리로 그녀의 귀에 대고...<동9 : 112>
- (8)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아이를 거칠게 안아갔다.<조990528>

(5)~(8)은 선행용언이 주체에 의한 객체의 <소지> 또는 <동반> 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면서 그들이 상 형식인 '-고 있다'를 취할 경우 <진행>이 아니라 <결과의 지속>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선행용언은 남기심(1994 : 32)에서 '행위의 끝남과 더불어 그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특별한 종류의 동사'로 분류되어 있는 용언인데, 그 중에서 '-어 가다/오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9) 다시 한번 물을 받아와 아내의 머리에 끼얹었다.<창95 : 192>
 (10) …군부대에서 얻어온 군용 건빵을 나누어주었다.<동1 : 355>
 (11)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을 걸쳐입었다.<사42 : 528>
 (12) …내 친구가 끌러주었던 바로 그 반지를 사 가요<창100 : 354>
 (13) 처음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창100 : 266>

(9)~(13)도 역시 선행용언이 <소지>라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8)과 비교할 경우 선행용언의 상 형식 '-고 있다'가 <결과의 지속>이 아니라 <진행>을 나타낸다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예들을 아래에 제시해 두기로 한다.

- (14) “흥기야, 삼촌 마을에 가서 팽이랑 삼태기 빌려오께.”<창99 : 193>
 (15) 형이 타온 옥수수 가루는 현기증이 나도록 노랬다.<동1 : 356>
 (16) …물래 챙겨온 무언가를 우적우적 먹곤 했다.<창97 : 153>
 (17) 나는 침대 위에서 삼베 이불을 걸어와 그를 덮어주었다.<사40 : 1569>
 (18) …한 번만 더 김치 훔쳐가면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니까…<동15 : 45>
 (19)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고…<동9 : 79>
 (20) 큰오빠는 꿇어온 표를 보며 시간이 좀 남았다면서…<동2 : 445>
 (21) …부영이 한 마리를 산 채로 주워 온 적이 있었답니다.<동15 : 332>
 (22) 10원짜리 동전이 굴러다녀도 애들조차 집어가지 않는다.<조930827>
 (23) …아주 드문 황제처럼 마을 사람들이 따오곤 하던 버섯.<동8 : 401>
 (24) …120cc짜리 오토바이의 경음기를 마지막으로 떼어왔다.<창97 : 73>
 (25) 혹시 이 약초들을 직접 산에 가서 뜯어온 거 아녜요?<창93 : 126>
 (26) …한 조직의 비밀서류를 빼오도록 협박하기 위해…<조981227>
 (27) …배추를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뽑아가는 사람이 없어…<조931117>

- (28)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끌라운 물종은 꽃게의…<창101 : 105>
- (29) 이번에는 좀더 큰 딸아이가 쓰레기를 모아 왔다.<조930910>
- (30) …마을에서 길어온 물로 라면을 삶기 시작했다.<창104 : 208>
- (31) 차 안에 물을 담아올 만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동8 : 214>
- (32) …물래 쏟아온 배추가 담긴 그릇을…<동2 : 440>
- (33) …값비싼 회귀 식물이라고해서 마구 캐가는 바람에…<조930427>
- (34) 두 사람은 어디서 피웠는지 붉은 황토흙을 이기고…<창99 : 199>

(30)~(34)와 같은 예들은 선행용언 자체에 꼭 <소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에 제시할 예들은 이제 선행용언이 <소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즉 주체가 선행용언의 동작의 결과물을 소지하면서 후행용언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의 단순한 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 의미에서는 합성용언이 성립되는 충분조건인 의미적 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의미적 융합은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35) 수건을 찬물에 헹궈와서 붓거나 멍든 데에 대고…<창92 : 174>
- (36) 세면장에서 수건을 물에 적셔와 그의 이마며…<사40 : 1569>
- (37) …이연미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어와 내게 주었고…<동1 : 294>
- (38) 병원에서 지어온 가루약을 숟가락에 개어서 먹었다.<동15 : 307>
- (39) 푸지게 무슨 선물을 한아름 싸갈 것도 아니면서…<창92 : 232>
- (40) …청계천으로 가져가 고쳐 와야 되겠다고 말했다.<창100 : 277>
- (41) …천원을 오백원짜리 동전 두 개로 바꿔와서 그중…<창101 : 105>
- (42) 우현의 처가 그의 점심밥을 정성스레 차려왔지만 그는…<창95 : 163>
- (43) …그 느낌을 적어오라는 것이 딸아이의 거울방학 숙제였다.<창1 : 360>
- (44) …엄마에게 선물하려고 들꽃을 꺾어왔다고 하기도 하고…<조990623>
- (45) …막 베어온 듯 탕탕하던 오동나무통은…<창93 : 164>
- (46) …냉장고에서 꺼낸 오렌지나 붉은 자몽을 잘라오는 것이다.<동13 : 343>
- (47)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고기를 잔뜩 썰어오신다. <동4 : 353>
- (48) 우리는 여인숙 주인이 끓여온 라면을 먹고… <동15 : 282>
- (49) 팔을 삶아서 집에서 뺏아온 참쌀가루로 떡을 찐다. <동4 : 320>
- (50) 정성껏 음식 만드는 법을 쪽지에 써보내던 Y는 결국 요리사가 되었다. 이제 Y의 이름을 걸고 학원을 열고 있고 Y의 이름으로 나온 요리책도 있다. Y의 노란 찬합 안엔 삶거나 데쳐진 나물들이 소복소복 담겨 있다. 가지,

호박, 콩나물, 시금치, 취.

“시간이 없어서 살아만 왔어. 여기서 무치려구.”

“역시 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생각은 무슨 생각이니. 무쳐오는 것보다 안 무쳐오는 게 더 쉽다, 애.” <창 101 : 102>

이 글에서는 실제 언어 자료에 나타난 예문만을 용례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때문에 이 정도에 그쳤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홍재성(1989 : 107)에 의하면 <계기>의 ‘-어 가다/오다’는 340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4. 합성용언의 판별

이제 지금까지 제시해 온 ‘-어 가다/오다’들이 합성용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줄고(1997)에서 시도한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 ‘-어 가다/오다’가 합성용언임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50)에서 제시한 예문 일부를 다시 한 번 보기로 한다.

(50) “시간이 없어서 살아만 왔어. 여기서 무치려구.”

합성어를 판별해 내는 여러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분리 불가능성’이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조사는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에 삽입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성용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이미 김창섭(1981 : 51-59), 김기혁(1995 : 413-414) 등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줄고(1997)에서 주장한 것은 특수조사가 삽입될 수 있는 구성은 통어적 구성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5) 이것을 이용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서’의 삽입 여부를 합성용언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 가다/오다’는 ‘-서’와의 대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의 삽입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를 순서대로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중간에 특수조사가 삽입될 수 있는 <V₁-어 V₂>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을 수 있다.

- (51) 미란은 꿈쩍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 <사40 : 1549>
- (52) 파출소의 책상 위의 비벼만 놓고 한 젓가락도 먹지 못한 자장면이 이제는 불 대로 불었을 것이다. <사40 : 1441>
- (53) 그래도 그 광경은 더욱 또렷해만 질 뿐이었다. <동15 : 128>
- (54) …그렇다고 야단치자니 치사해져서 아니꼬워만 할 뿐… <동15 : 210>

(51)은 상 형식이고 (52)는 보조용언 구성이다. 이 두 가지는 흔히 형태·통어적 구성이라 일컬어진다. 상 형식과 보조용언 구성은 두 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단어로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형태적 구성이라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은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53), (54)의 후행용언은 연구자에 따라서 접미사로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접속 구성은 아니다. (53)은 선행용언에 동사, 형용사가 모두 가능하고, (54)는 선행용언이 형용사인 것이 원칙이지만 줄고(1997 : 99)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경우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50)은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만약에 (50)이 접속 구성이라면 <V₁-어 V₂>란 선행절에 속하는 선행용언과 후행절에 속하는 후행용언이 표면적으로 직결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에 임의의 요소가 끼어들 수 있어야 하고 후행용언의 존재도 필수적이지 않아야 한다. 즉 ‘앉아만’과 ‘오다’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 있어야 하고 ‘오다’ 없이도 문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앉아만’과 ‘오다’ 사이에 아무런 요소가 삽입될 수 없고 후행용언 없이 ‘앉아만’이 성립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앉아만’만으로는 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접속 구성을 이루는 ‘-어’ 뒤에는 특수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것, 바꿔 말하면 특수조사가 삽입된 <V₁-어 V₂>가 접속 구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어’ 에 특수조사가 후속된 (51)~(54)와 같은 형태가 모두 ‘분리 불가능성’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이제 이 글에서 제시해 온 '-어 가다/오다'가 합성동사임이 밝혀진 셈이다. <V₁-어 V₂>에 특수조사가 삽입된 다음과 같은 예들은 접속 구성일 수 없고, 또 의미적으로 볼 때 보조동사 구성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모두 합성용언으로 보아야 한다.

(55) 일본의 대외흑자는...등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나고...<조930928>

(56) ...그가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았다.<동97 : 148>

이 사실은 어떠한 <V₁-어 V₂>가 합성용언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57)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동9 : 91>

(58) ...외국의 통상압력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조930505>

(57), (58)이 합성용언으로 인정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에 특수조사가 삽입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59) 며칠 동안 내내 누워만 지내다가 갑자기... <동10 : 156>

(60) ...또 과거처럼, 야당에 끌려만 다니는게 아니라... <조930616>

(59)~(60)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특수조사의 삽입이 가능하고 보조용언 구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누워지내다', '끌려다니다'는 각각 합성용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어떠한 <V₁-어 V₂>가 존재할 때 선행용언과 후행용언 사이에 특수조사가 삽입될 수 있으면 그 <V₁-어 V₂>는 접속 구성일 수 없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⁶⁾

(61)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행동했던 선샤인 후지 호의 경험은...<동7 : 231>

6) 이것은 즐고(1997 : 95)를 일부 수정한 것인데, 강현화(1998 : 191)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즉 접속 구성은 두 용언 사이에 특수조사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가다'는 삽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뛰어가다'를 합성용언으로 보는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강현화(1998 : 208-211)는 '깎아먹다'에 특수조사가 삽입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합성용언으로 본 김창섭(1981)을 비판하는 등 일관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62) “...오늘은 그만 돌아들 가십시오...”<사42 : 463>

(63) “...언어를 먹으러 땡겨두 뚝 빌어치먹게 허구...”<동1 : 183>

<V₁-어 V₂> 사이에 삽입되는 특수조사는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대부분 ‘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61)과 같이 후행용언이 ‘명사-하다’ 구성인 것도 있다. (62)는 ‘들’이 쓰인 경우이다. ‘들’이 쓰인 (63)의 경우 이것을 특수조사로 보는가 격조사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합성용언 판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V₁-어 V₂> 사이에 특수조사가 삽입된 형태는 필자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발화가 충실히 반영된 구술 자료를 상세히 조사해 보면 특수조사 삽입의 양상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5. <계기>와 <소지>를 나타내는 접속 구성

지금까지 보아 온 합성용언 ‘-어 가다/오다’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용언의 동작의 결과로 생긴 객체를 주체가 소지하고 후행용언의 동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객체의 <소지>라는 의미는 접속 구성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이 <계기>의 관계에 있으면서 객체의 <소지>를 나타내는 접속 구성에 대해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64) ...또 색연필을 가지고 오겠다면서 제 방으로 뛰어갔다.<동17 : 231>

(65) ...아버지가 자주 가던 회사 근처의 내파에 테리고 갔다.<동12 : 235>

(66)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사42 : 480>

(67) ...이 여자를 침대에까지 안고 가려면 너무 무겁겠구나...<동10 : 184>

(5)~(8)에 제시한 ‘-어 가다/오다’는 (64)~(67)과 같이 ‘-고’에 의하여 대치될 수 있다.⁷⁾ 그러나 이 경우 ‘-어서’와의 대치는 아주 부자연스럽다.

7) 다만 ‘가져오다’의 경우 후행용언에 이동의 의미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와의 대치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 예를 아래에 제시해 둔다.

그 부자연스러움은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성분이 끼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68) …조계약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는 신경성 스트레스라고….<동1 : 296>

(69) 오후에 일어나 딸아이를 데리고 박물관에 갔다.<동1 : 360>

이동 동작을 나타내는 후행용언을 ‘가다/오다’ 이외의 다른 것으로 확대해서 확인해 보자.

(70) “어서 큰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큰절을 하거라.”<동9 : 112>

(71) 나는…자명종 시계를 가슴계에 안고 거실로 나온다.<동17 : 109>

(70), (71)의 경우도 ‘-고’는 쓰이나 ‘-어서’와의 대치는 부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상 형식 ‘-고 있다’가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는 선행용언과 이동을 나타내는 후행용언이 접속 구성으로 <계기>의 관계를 이루는 경우 ‘-어서’는 쓰이지 않고 ‘-고’만이 쓰인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선행용언 중에서 ‘-어 가다/오다’를 형성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72) 딸아이는 공책값 이백원을 받아서 학교로 갔고….<동1 : 339>

(73) …남은 돈으로 고속버스표를 사서 어촌마을로 내려갔다.<동15 : 304>

(74) …삼촌도 구시렁거리며 할머니한테 돈을 타서 나갔다.<창102 : 183>

(75) …스패너, 드라이버 따위를 챙겨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창97 : 74>

(68)~(71)과는 달리 (72)~(75)에서는 ‘-어서’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것은 (72)~(75)을 구성하는 선행용언이 상 형식 ‘-고 있다’를 취할 경우 그 의미가 <진행>이 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5)

(ㄱ) 혼이가 손등을 불쑥 그녀의 눈앞에 가져왔다. <창93 : 199>

(ㄴ) 아마도 죽음이 가져오는 단절은 일방적인 모양이었다. <동15 : 292>

(ㄱ)은 주체가 신체의 일부분을 이동시켰을 뿐 주체 그 자신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ㄴ)도 추상물로서의 주체는 객체를 전달하는 데 이동한다고 할 수 없고 어휘적인 의미가 ‘초래하다’라는 전의된 의미로 쓰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는 ‘-고 있다’가 문맥에 따라 <결과의 지속>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진행>의 의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 (68)~(71)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76)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내려오는 기찻간에서였어.<동12 : 247>
- (77) …냄비에 내장탕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지.<창100 : 324>
- (78) 어렵게 셋째오빠의 등록금을 만들어서 큰오빠의 졸업식에 올라온 아버지는 우리들의 외딴 방 아래쪽에 침퐁하게 앉아 있다.<동1 : 319>

<소지>라는 의미를 어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72)~(75)와는 달리 (76)~(78)은 선행용언의 동작 그 자체에 그러한 의미를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면 ‘-어 가다/오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서’의 문법적 기능의 하나인 <소지>가 실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72)~(78)과 같이 <소지>의 의미를 실현하는 데 ‘-어서’가 쓰이는 선행용언이 ‘-고’를 취할 경우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살펴 보기 위하여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 (79) 술주전자가 빈 것을 안 주인이 다시 주전자를 채워 왔다.<창100 : 315>
- (80) …007가방에 독일돈 3만마르크를 채워서 대리점에 와….<조930809>
- (81)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주소이전신고 엽서를 채우고 왔다.<동8 : 363>⁸⁾

합성용언인 (79), ‘-어서’가 쓰인 (80)은 주체가 객체를 소지하고 이동 동작이 행해짐을 나타낸다. 그러나 (81)은 선행용언이 이루어진 현장에 객체를 두고 후행용언이 행해진다. 그러한 차이가 이들 예문에서 관찰된다.

다음은 합성용언과 ‘-고’의 쓰임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문이다.

8) ‘채우다’의 상 형식 ‘채우고 있다’는 <결과의 지속>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결과의 지속>과 <진행>의 예를 하나씩 제시해 둔다.

- (ㄱ) 크고 작은 하얀 생크림 케이크가 진열장을 채우고 있다.<창100 : 376>
- (ㄴ) 씨는 얼음상자에 생수병을 채우고 있던 양홍춘에게….<창100 : 247>

- (82) …한과장은 남자가 쓴 기사를 진성으로 훑어본다.<동10 : 152>
- (83) …열시 반까지 기사를 쓰고 올 테니…<창100 : 315>
- (84) “우리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 오겠대요…”<동16 : 166>
- (85)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고 왔을 때…<조930729>

(82), (83)은 ‘기사’를 객체로 하는 문장인데 (82)에 주체가 객체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83)은 그렇지 않다. (84), (85)의 경우도 (84)가 객체인 ‘사진’을 주체가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85)에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83), (85)의 경우 주체가 객체를 소지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 (86) …도매시장까지 득달같이 달려가서 장을 봐오는 사위도…<동2 : 207>
- (87) …시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창92 : 147>
- (88) 그렇게 장을 보고 식당으로 돌아오면 훈먼지로 입 안이…<동14 : 106>
- (89) …청와대를 찾아가 김영삼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왔다.<조930608>

‘보다’라는 성행용언은 어휘적 의미 그 자체에 <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장을 보다’라는 단어결합을 이름으로 인하여 <소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86), (87)과 같은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87)과 (88)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장을 보다’라는 단어결합을 이루더라도 ‘-어서’가 쓰이지 않고 ‘-고’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연결어미 ‘-어서’와 합성용언 ‘-어 가다/오다’는 주체에 의한 객체의 소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89)인데 ‘얼굴을 보다’라는 단어결합에서는 객체의 소지라는 의미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어서’로 대체할 수 없고 합성용언 ‘-어 가다/오다’로 나타낼 수도 없다. 한편 연결어미 ‘-고’는 객체의 소지를 부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객체의 소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객체의 소지 여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 (90) 금방 따서 물에 씻어온 붉은 딸기를 한 바구니씩 앞에...<동19 : 215>
- (91) “꽃게로구나. 손 좀 씻고 와서 먹어야겠다.”<창101 : 119>
- (92) “김삼옥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오래.”<동2 : 433>
- (93) 다 알고 왔다는 투로 물었다.<동14 : 121>

(90)과 (91)은 모두 객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의 객체 ‘딸기’는 소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수의적인 객체에 비해 (91)의 객체 ‘손’은 신체의 일부분으로 (90)의 관계와 다르다. 그러한 차이가 (90)과 (91)의 쓰임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92), (93)은 객체가 추상물인 경우인데 (90), (91)과 유사한 차이를 보인다. (92)는 주체가 객체를 소지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데 반해 (93)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91), (93)의 객체는 객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연결어미 ‘-어서’와 ‘-고’의 쓰임에 관해서는 졸고(1999b)에서 좀 더 상세히 고찰하였다.

6. 마무리

지금까지 논해 온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 가다/오다’에는 <동시>와 <계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계기>를 나타내는 ‘-어 가다/오다’도 충분히 합성용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졸고(1997)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해 검증하였다.

강현화(1998 : 50)는 <계기>의 ‘-어 가다/오다’가 합성용언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근거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는 점과 의미적인 합성성을 가진다(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의 의미적인 융합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의 높고 낮음은 합성용언 인정 여부와 원래 무관한 것이라 하여야 하며 의미적인 융합은 합성용언임을 결정짓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어도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다.

‘높은 생산성’은 단순히 사전 표제어에서 많이 찾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을 이루는 합성용언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어휘는 문법과 달리 그 모든 항목을 망라하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V₁-어 V₂>가 합성용언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사전 표제어에의 등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표제어 등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미적 융합성이 합성용언 인정 여부와 무관한 이상 '사용 빈도'가 현재로서는 제일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이 지금까지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던 합성용언을 등재하였다는 사실은⁹⁾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 가다/오다'와 접속 구성 '-어서', '-고'와의 의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선행용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용언의 상 형식 '-고 있다'가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는 유형은 합성용언을 '-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어서'로의 대체는 아주 부자연스럽다. '가지다', '안다'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소지>라는 의미가 문법적으로 결정된 유형이라 하겠다.

한편 '-고 있다'가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은 <계기>와 <소지>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접속 구성으로 대체하려면 '-고'가 아니라 '-어서'를 써야 한다. 이 사실은 후행용언이 '가다/오다' 이외의 이동동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은 '사다', '받다' 등 어휘적으로 <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리와 '채우다' 등 <소지>라는 의미가 인정되지 않는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어휘적 의미에 의한 구분이므로 다단계적인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어'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급해 두기로 한다.

<V₁-어 V₂>가 문법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되는 만큼 '-어'의 기능에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접속 구성으로서의 '-어'이고 둘째는 합성용언을 만드는 데 쓰이는 '-어'이며 셋째는 보조용

9) 구체적인 예는 줄고(1999a)에서 언급하였다. 줄고(1999a)는 지금까지 간행된 현대 한국어 사전 중에서 동 사전을 사전학의 원리에 제일 충실한 사전으로 평가하였다.

언 구성의 '-어'이다.

이들에 어떠한 문법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가령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 1201-1202)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Ⅰ 종속적 연결 어미', 'Ⅱ 보조적인 연결 어미', 'Ⅲ 부사적 기능', 'Ⅳ 관용적인 쓰임', 'Ⅴ 단어 연결 어미'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₁-어 V₂>의 세 가지 쓰임에 비추어 다시 분류하면 I, III, IV는 접속 구성, II는 보조용언 구성, V는 합성용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II와 V의 문법적 기능이다. I과 III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상호관계에 따라 '시간의 앞뒤 순서', '뒷절의 원인이나 이유', '행동의 방식이나 수단' 등 구체적인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해 II와 V의 문법적 기능이란 단지 선행용언과 후행용언을 이어 주는 것뿐이다. (IV는 관용적 쓰임인 만큼 문법적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접속 구성을 이루는 '-어'와 합성용언을 만드는 데 쓰이는 단어형성 요소로서의 '-어'는 전혀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것을 같은 범주에 넣어 도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찰이지만 자료 수집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적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한다. 근래에는 여러 공적 기관에서 대규모 코퍼스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자료들이 개방되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소고를 마치기로 한다.

용례로 사용한 언어 자료

-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사>
- 『문학동네』, 문학동네. <동>
-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조>
-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창>

참고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출판사.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남기심(1994), 『국어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內山政春(1997), 『現代朝鮮語における合成用言について』, 『朝鮮學報』 165.
內山政春(1999a), 『書評 延世韓國語辭典』, 『朝鮮學報』 172.
內山政春(1999b), 『現代朝鮮語の接續形-어서と-고について』, 『朝鮮學報』 173.
野間秀樹(1993), 『現代韓國語의 接續形<-다가>에 對하여』, 『朝鮮學報』 14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홍재성(1987), 『한국어 사전에서의 다의어 처리와 동형어 처리의 선택』, 『동방학지』 54·55·56.
홍재성(1989), 『내려가다/내려오다와 그 사전적 처리』, 『애산학보』 7.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7), *Введение Аспектуальность. Временная локализованность. Таксис*, Ленинград